

집사 《集史》에 나타난 흉배(胸背)에 관한 연구

김 미 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Study of *Hyoong Bae*(흉배) Found *Jip Sah*(集史)

Mi-J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11. 13 투고)

ABSTRACT

During the *Chosun*(朝鮮) and *Ming*(明) Dynasty, embroidered patches called *hyoong bae*(胸背), were worn on the front and back of official robes worn by courtiers based on class distinction. It was discovered in *Jip Sah*(Genghis Khan's history books) that the miniatures, patterns used in the *Won*(元) Period, were passed down to the *Ming* Dynasty in the 14th century. Shape patterns included circles, triangles, squares, and ovals. Other patterns included dragons, deer, leaves, and branch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lass distinction in wearing these patches. Out of 14 different miniatur, 41 men had worn these patches.

Key words : *hyoong bae*(흉배), *Jip Sah*(집사)

I. 서 론

본 연구는 집사에 나타난 흉배에 관한 연구이다. 흉배란, 관리의 상복(常服)에 가슴(胸)과 등(背)에 문양을 가식하여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에서는 보(補)라고 한다. 중국에서 보(補)제도는 명 홍무 26년(1396년) 제정되었다. 집사의 배경 시대인 원에서

는, 흉배제도는 없었으나 집사에는 남자들의 가슴과 등, 그리고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문양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림들이 보인다. 그러므로 집사에 나타난 흉배는 명시대의 보제도와 영향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연구의 목적은 집사에 나타난 흉배를 통해 명의 보제도 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Mi-Ja Kim, E-mail: kmj@swu.ac.kr

본 연구는 200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특별연구과제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연구의 시대는 한시대부터 명나라이며, 집사에 나타난 원시대가 주된 범위이다. 연구 자료는 파리 박물관에 소장중인 14세기 필사본인 집사와 삽화(miniature;세밀화)에 나타난 몽골의 흉배이며, 그 외 문헌과 조각, 도용 등에 나타난 흉배 연관 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집사의 세밀화는 몽골제국의 5권¹⁾에서 참고한 23점의 삽화이다. 이 가운데 18점에서 41명이 흉배를 장식한 옷을 착용하였는데 무늬가 분명한 흉배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사용된 '흉배'라는 용어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한습 학습서인 《원간 노걸대》²⁾ 언해에 흉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과 고려말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용어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II. 일汗國의 역사와 《集史》

징기스칸은 1206년(회종 2)에 몽고지역 전체를 통합하고 몽골족과 투르크계의 모든 유목민족을 지배하게 된 후, 징기스칸(成吉思汗)이라 칭하고 大蒙古國을 세웠다. 다음해부터 주위의 西夏國, 金, 西遼國 등을 정복하였고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러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확대된 영토는 징기스칸의 여러 아들 및 동생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일汗國(1256-1335)은 4개의 汗國중 가장 늦게 성립되었다.

틀루이의 장남 몽케칸이 파견했던 동생 훌레구(재위 1258-1265년)가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그 뒤 아제르바이잔을 자신의 본거지로 세운 나라이다. 제 7대 가잔칸(1295-1304)은 각국의 언어에 능통한 총명한 군주였으며 국내 주요 세력의 대두를 철저히 억제하여 중앙 집권체제를 개선하고 여러 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다. 외교면에서도 그리스도교권의 국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元朝를 몽골제국의 종주국으로 인정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그는 냉철하여 현실에 알맞은 정책을 실시하여 일칸국의 문화와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 했다. 가잔은 자신이 즉위하기 전해에 죽은 쿠빌라이를 존경하고 있었고 쿠빌라이의 元나라를 모범으로 하여 자신도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가잔칸이 즉위한 해(1295)는 몽골을 통일한지 90년이 되었고, 일칸국을 일으킨지도 반세기나 되었다.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몽골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몽골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특히 이란 방면 몽골인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화와 부귀의 근원이 훌레구와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한 결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가잔칸은 1300년에 라시드 앳딘(Rashid Addin 1247?-1318 페르시아인, 학자. 재상)에게 징기스칸의 역사(몽골제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하여 역사서가 완성되었다. 제 8대 울자이칸(1305년에 즉위)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제국의 경영자로서 그에 합당한 세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완성된 징기스칸의 역사서에 유라시아 제민족의 역사를 합하여 편찬하도록 명하여 1310년 완성된 것이 3권으로 된 《集史》이다.

《集史》는 명쾌한 문체, 객관적인 사관, 광범위한 지식에 의해 쓰여진 굴지의 世界史이며 이란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集史》의 사본이 세계 각지의 文書館, 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集史》의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중국화가와 몽골화가를 초칭해 갔으며, 《集史》에서 라시드 앳딘은 이슬람 학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신라가 아닌 고려로 호칭하고 있다. 《집사》를 작성하던 시기의 이란국에는 많은 수의 중국인 화가가 있었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기록함에 그들의 도움이 컸다³⁾. 元에서 화가를 초칭해 갈 때 몽골화가와 중국인(漢族)화가가 함께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흉배 역사와 문양

1. 흉배의 역사

중국에서 흉배제도는 명에서 補제도로 성립되어 백관의 常服에 가슴과 등에 수를 놓은 문양으로 관리의 품계를 구별하였다. 명에서는 이러한 표식을 補라고 불렀지만, 元에서는 '흉배'라는 용어가 사용되

있고, 長袍나 袴護의 가슴과 등, 혹은 양어깨에도 문양이 있다. 흉배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漢代에 直指의 繡衣, 東晉의 銘袍, 唐代의 文官의 繡袍와 武官의 戰袍에 맹수를 수놓은 것 등이 있으며, 이것이 宋·元·明에 답습되어 明의 補子로 제도화 되었다. 흉배의 원류라고 생각되는 가슴과 등 또는 어깨에 수를 놓은 옷 또는 원의 기록과 明의 補子로 제도화 되기까지 과정을 각 시대별로 고찰한다.

1) 漢代의 繡衣

《西漢會要》에 繡衣直指가 있는데 直指는 漢代의 관직의 하나이며 制服을 繡衣라 했는데 上衣 등 부분에 黼文이 자수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漢書》에는 待御史(법을 다루는 관직) 綌衣直指가 있는데 綌衣는 繡衣로 이 옷은 後漢시대에도 답습되었다고 하였다.⁴⁾

2) 東晉의 銘袍

銘袍 즉 回文銘袍는 《唐書與服志》에 “長壽 3년(694) 4월에 岳牧 金宋·銀宋·銘袍를 사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銘袍는 금·은실로 수 놓은 문양 장식을 하고 回文(여러사람이 순번으로 돌려서 보는 글)이 있는 것을 말한다. 東晉 秦 符堅시대에 秦洲刺史 寶滔의 처 蘇氏가 彩綿袍를 짜서 寶滔에게 주었는데 七言回文詩를 수놓아 장식한 것에서 銘袍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후 六朝·隋·唐의 袍衫에 유행문양이 계속되었다.⁵⁾

3) 唐의 흉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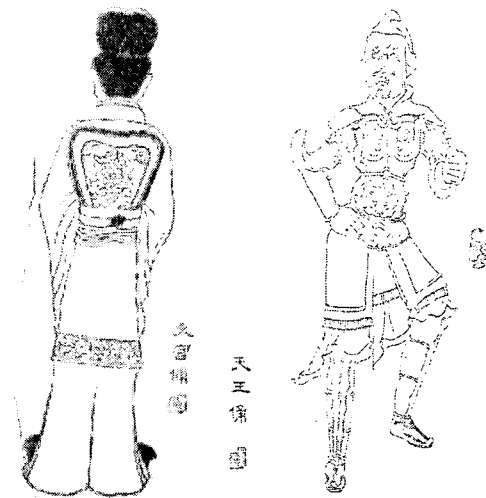
唐代 武則天이 繡袍를 만들어 신임 都督 刺史등 관원에게 상으로 사여하다가 후에는 王公·제상·尙書등 3품이상 고급문무관에게도 상으로 사여하였다. 銘袍는 소매가 넓은 우입단령으로 가슴에는 鳥獸花紋이 있고 등에는 銘文이 있었다.

문무관의 품에 따라 服色·문양등이 구별되었다. 袍衫의 문양은 《唐書與服志》에 文宗 太和 6년 6월(832)에 3품 이상 鵝 [鵝] 와 瑞草 기러기, 및 공작 문綾으로 만든 袍衫, 4·5 품은 交枝 황색綾으로 만든 袍, 6품 이하 常參官은 小川窠綾, 無紋綾, 隔織 隔綾, 獨織등 으로 만든 袍, 해치, 사자문을 장식한

袍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唐代 袍衫 위에는 특별한 문양이 장식되었다. 최근 출토되는 당대 衣料 중에 위와같은 絲織物 의 衣料문양이 적지 않다⁶⁾고 하였다.

唐代 武官은 補褶과 戰袍를 착용하는데 전포의 가슴 앞에 繡紋이 있으며 당대의 武將의 典型服式은 宋·元·明까지 계속되었다. 전포에 놓은 수 문양을 《唐書車服志》에 서보면 衛大將軍中郎이하 모두 수문을 하였다. 韃牛衛는 瑞牛문, 左右衛는 瑞馬문, 驍衛는 虎문, 武衛는 羚羊문, 威衛는 豹(표범)문, 領軍衛는 白澤金(기린과 유사)으로 하였다.

宋代에 저술된 《中華古今注》에 의하면 戰襖 나 訣勝戰袍는, 武德元年(618) 李高祖가 조서를 내리기를 衛將軍들은 매 10월 1일까지 모두 缺勝襖子를 입는데 瑞獸를 직성한 襖子, 左右武衛장군은 豹文 襖子, 左右武衛장군은 瑞羚羊 襖子, 7품 이상 모두 無文綾襖로 하였고 그 制가 변하지 않고 宋代까지 계속되었으며 宋代 武將服式은 元, 明까지 계속되었다.⁷⁾



<도 1> 文官備, p. 48 昭陵唐人服飾
<도 2> 天王備, p. 48 昭陵唐人服飾

당대의 戰袍에 수놓은 繡紋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備⁸⁾이 착용한 양당의 문양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張士貴墓 출토품인 문관용(657년, 도 1)과 武將備이 착용한 양당의 등부분에 문양이 있다.

臨川 公主墓출토 天王 俑(682년, 도2)은 양당갑을 착용했는데 양당의 양쪽가슴에 원형을, 배부분에는 짐승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와같이 《中華古今註》의 唐代 衛將들은 양당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것 같이, 戰袍의 가슴과 등에 繡紋을 장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唐대의 명포와 繡服에 관한 연구가 있어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그대로 적는다.

武則天이 天授 2년(691)에 內府에 명령하여 袍에 수를 놓은 새로운 양식의 의복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袍에는 山모양을 수놓고 “德政惟明 職令恩平”, “清慎忠勤 榮進躬親”라는 글자를 수놓았다. 이런 銘文을 수놓은 “銘袍”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특별히 신임하는 신하들에게만 착용토록 하였다. 그러다가 延載 원년(694)에 이르러 문·무관 3품 이상인 관리에게 다른 무늬를 수놓은 繡服을 착용토록 하였다. 포에 수놓은 글자 역시 종류가 다양하였다. 글자 수가 16개이던 것이 8개로 되어 의복의 등에 수놓았다. 그러나 반드시 수놓은 것이 글자만이 아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문양을 수놓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左右監門衛將軍과 같은 무관 3품 이상인 경우에는 獅子 한 쌍을 수놓았고, 左右衛는 麒麟을 수놓았다. 左右武衛는 호랑이 한 쌍을, 左右豹韜衛는 豹 한 쌍을, 左右矜揚衛는 매를 수놓았다. 左右玉鈴은 송골매(鵞)를 한쌍 수놓았다. 左右金吾衛는 雉를 한 쌍 수놓았다. 제왕의 수식은 盤龍과 사슴이었고, 宰相은 鳳池, 尙書는 기러기 한쌍을 수놓았다. 이렇게 관복에 각기 다른 도안을 수놓아 관리들의 계급을 구별하게 되었다.9)

4) 거란(契丹)의 흉배

거란(契丹)의 흉배를 알수 있는 자료는 3개가 있는데 모두 가슴·등·양 어깨에 원형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宣化遼墓인 張世卿(1116년 卒)묘 벽화¹⁰⁾ 중 前室 남쪽, 서쪽, 북쪽 벽의 門吏(9명)가 가슴과 양어깨에 원형의 장식이 있는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前室 남벽의 우측 門吏는 남색 단령의 가슴과 양 어깨에 문양이 없는 둥근 장식이 있고, 전실 북벽의 두손에 杖을 들고 있는 좌측 門吏가 청색 단령에 가슴 양어깨에 흰색 둥근 장

식(도 3)이 있는데 안쪽에 홍색화문 3개가 시문되어 있다, 전실 서벽의 出行圖에 말끄는 사람(흑색 복두에 갈색 단령), 일산을 든 사람(백색 단령), 흰색 모자를 든 사람(홍단령), 옷을 든 사람(청단령) 총 4인 모두의 가슴과 양 어깨에 흰색 원형 장식이 있는데 원형 안에는 도 3과 같은 홍색화문이 있다. 後室 북벽의 門吏 4인이 미색 단령에 흰색 원형장식을 가슴과 양어깨에 하였는데 문양이 희미하나 도 3과 같이 홍색화문으로 보인다.

巴林左旗滴水湖에서 발굴된 遼墓¹¹⁾의 벽화 인물



<도 3> 장세경묘, 門吏



<도 4> 巴林左旗滴水湖요묘벽화 요대복식, p. 87.



<도 5> 요대 錦袍, 요대복식, p. 72.

중 연갈색 단령을 입은 술을 들고 있는 사람(도 4)과 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의 가슴·배·양 어깨에 사슴 문 원형장식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유물인 錦袍¹²⁾(도 5)가 있는데 쌍봉을 가슴·배·양 어깨에 하였다.

5) 金の 흉배

《金史與服志》에 흉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金人의 常服은 巾·盤領衣·馬皮靴·帶이며 色은 白이 많으며 三品은 皂이다. 길이는 정강이까지 짧아 말타기에 편하다. 가슴과 어깨 소매에 錦繡로 장식한 것도 있다. 春水服은 매가 거위를 잡는 장면과 여러 가지 꽃·잎 등의 무늬가 있는 것이고 秋山服은 곰·사슴·산나무 등의 문양이 있는 것이다.¹³⁾

6) 元의 흉배

원의 흉배에 관한 기록은 《노걸대 박통사 언해》(주1 참조)에서 찾을 수 있다. 흉배의 정의가 《박통사》에 보이는데 흉배란 紗·羅·段위에 흉배문양을 오색실로 織成한 것이며 재단하여 의복을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¹⁴⁾ 원의 흉배에 대한 가시적 자료는 《집사》의 삽화, 《事林廣記》의 원대남자(도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 6> 事林廣記의 원대남자 중국복식명물고, p. 77.



<도 7> 元代 洪趙縣 廣膝寺벽화 雜劇人의 흉배 중국고대복식연구, p.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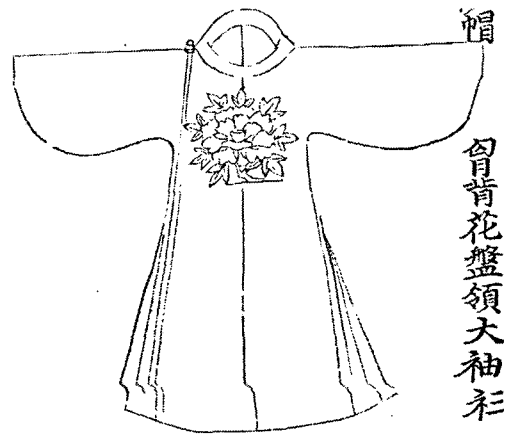
元代 洪趙縣 廣膝寺벽화의 雜劇人(도 7)이 입고 있는 청단령의 가슴·등·양 어깨에 구름과 짐승이 어우러진 원형문양이 있다.

《노걸대 박통사》에 나타난 흉배가 직성된 옷(표 1)은 大紅 직금 칠릭과 明線색 흉배 比甲 이 있다. 흉배문양을 직성한 비단의 종류는 고려에서 짚다고 볼 수 있는 천청색 흉배한 비단, 6량 혹은 7량을 받을 수 있는 직금 흉배, 중국 소주산 짙은 아청색 직금 흉배가 있다.

6) 明의 흉배

明의 補제도는 거란, 원의 흉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명의 보제도는 漢代에 시작해서 송·원에 전해졌지만 거란인과 원나라 사람들에게 유행되었던 흉배가 제도화 되었다고 본다.

명의 상복 제도는 洪武 23년 제정 되었고 補 제도는 홍무 26년 (1396)에 제정되었다. 명에서는 황제 관리의 것은 補, 補子라고 하였는데 홍무 3년에 정한 樂藝 의 冠服에는 胸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⁵⁾ 또한 《大明集禮》에는 內使 (도 8)의 복식이 ‘烏紗帽에 花 胸背를 단 盤領大袖衫’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 8> 明代樂人服, 大明集禮

2. 《集史》에 나타난 흉배

삽화에서는 가슴에 그려진 흉이나 등에 그려진 배의 문양만 있지만 흉배를 착용했다고 간주하였다. 흉

배가 있는 옷을 착용한 삽화 14점을 고찰한 결과 가슴과 등에 흉배를 착용한 사람과, 가슴과 등, 양어깨에 흉배 문양이 있는 옷을 착용한 사람으로 나뉜다. 황제, 왕자, 신하, 군인들이 長袍, 담호의 가슴과 등에 흉배나 가슴과 등 양어깨에 흉배문양을 하였는데 담호를 착용한 사람이 많은 탓인지 대부분 담호에 흉배를 하였다.

1) 흉배의 형태와 무늬

흉배의 형태는 사각형, 원형, 타원형, 밀이 등근삼각형이 있다. 밀이 등근삼각형 한개만 테두리가 있고, 다른 것은 모두 테두리가 없이 문양으로 형태가 만들어졌다.

흉배에 시문한 무늬가 분명한 것을 택하여 흉배를 분석하였다. 시문된 무늬는 동물문과 식물문으로 나뉘는데 동물문은 용문과 사슴문으로 보이는 문양 2종류이고 6인이 사용했다. 식물문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였으며 형태는 7개의 것으로 형성된 원형과 잎과 가지가 혼합된 사각형, 타원형, 삼각형이었다.

(1) 동물문

동물문은 용문과 사슴(?)문이 있다. 용문 흉배는 5인이 착용하였는데 조금씩 용모양이 달랐다. 몽케칸의 흉배(도 11-1)의 용은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형상이고 징기스칸과 가족(도 9) 중 꿰어앉은 사람의 용흉배(도 11-2)는 머리를 좌측으로 돌린채 올라가는 형상이고 서있는 사람의 흉배중 머리를 좌측으로 향한 용(도 11-3)과 우측으로 향한 용(도 11-4)이 있는데 올라가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

몽케칸과 가족(도 10)중 맨밑에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슴과 양어깨에 있는 용흉배(도 11-5)는 2마리 용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형상이 타원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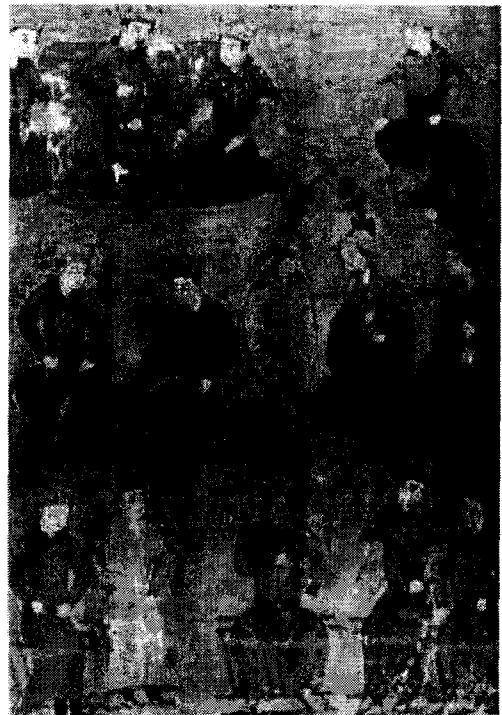
(도 12)는 사슴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꽃송이와 잎사귀가 사슴의 앞과 위쪽에 시문되어있다.

(2) 식물문

흉배에 시문된 식물문은 형태가 똑같은 것은 없으나 차이는 근소하다. 줄기, 가지, 잎, 꽃송이등을 배치함에 따라 원형, 사각형, 타원형,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므로 형태별로 고찰한다.



<도 9> 최성기의 징기스칸과 가족, 대세계사, p.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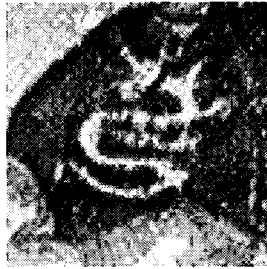
<도 10>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도 11-1> 몽케칸의 용문, 몽골제국, p. 15.



<도 11-2> 최성가의 징기스칸의 가족, 대세계사 2, p. 323.



<도 11-3> 징기스칸의 가족, 대세계사 2, p. 323.



<도 11-4> 징기스칸의 가족, 대세계사 2, p. 323.

크기가 작다. 앞사귀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크기가 작은 원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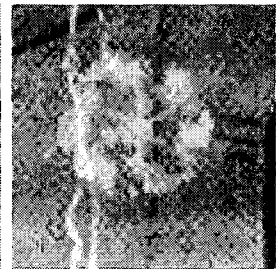
홀레구칸의 봄연회에 참석한 사람 10중 1명은 삼각형 흉배(도16-2), 3명은 원형흉배를 착용하였는데 작은 원형 흉배(도 13-2)와 유사하다. 징기스칸의 손자들의 원형흉배(도 13-3)는 (도 13-1)과 유사하다.

원형흉배의 무늬는 비슷하며 원형의 크기가 대, 중, 소로 나뉜다.

하라즘 전쟁시 공격하는 몽골군중의 2인의 원형흉배는 무늬없는 작은 원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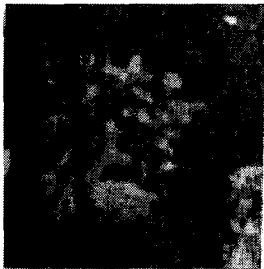
<도 13-1>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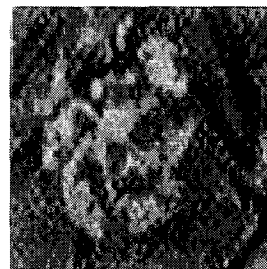
<도 13-2>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도 11-5>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도 12> 바투칸과 신하들 中 신하의 사슴문흉배, 몽골제국 p. 136.



<도 13-3> 징기스칸의 손자들, 몽골제국, p. 29.

(1) 원형흉배

원형흉배는 중앙에 있는 원을 중심으로 앞사귀 7개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배치되어 원형을 이루는 문양이다. 몽케칸과 가족(도 10)에서 서있는 사람들의 원형 흉배의 문양의 차이점은 근소하다.

제일 큰 원형 흉배(도 13-1)는 앞사귀 7개의 간격이 벌어져 있고 앞사귀에 작은 잎이 한 개씩 더 붙어 있다. (도 13-2)은 앞사귀 6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2) 사각형 흉배

사각형 흉배는 크기가 원형흉배보다 크다. 무늬는 위로 향한 꽃송이가 위아래로 2송이씩 총 4개의 꽃송이가 배치되어 사각형을 이룬 형태(도 14-1)와 중심가지에 긴 잎이 좌우로 달려있는 모티브를 상하 좌우로 배치한 사각형 흉배(도 14-2)가 있다. 중심가지에 많은 작은 가지와 잎이 좌우로 뻗어있고 전체적으로 위를 향하는 사각형 흉배(도 14-3)와 긴가지를 중심으로 위로 뻗은 많은 가지와 잎이 모여 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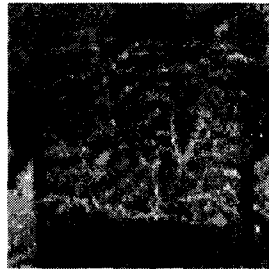
형을 이루는 흉배(도 14-4)가 있는데 두 그림은 유사하나, (도 14-4)는 (도 14-3)보다 크기가 작고 중심 가지 주위의 가지와 잎의 수도 적다.

최성기의 징기스칸에서 징기스칸이 깃털관과 장포위에 사각흉배가 있는 담호를 입었는데 흉배는 많은 둥근잎이 가지를 중심으로 배치된 사각형 흉배이다.

몽고기마병의 사각형흉배(도 14-5)는 긴가지가 사선으로 뻗어 있고 큰 꽃송이와 작은 가지가 함께 배치되었다.



<도 14-1> 차카타이칸
앞에서의 대신 처형을 서
있는 사람, 조일백과, p. 51
A-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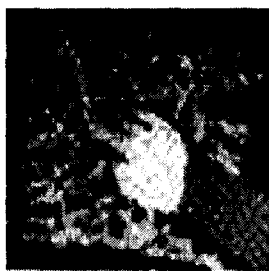
<도 14-2> 징기스칸의
손자들, 몽골제국, p. 29.



<도 14-3> 오고타이족위식,
몽골제국, p. 23.



<도 14-4> 징기스칸의
오르도귀환중 신하의 흉배,
대세계사, p. 337.



<도 14-5> 몽골기마병
몽골제국 p. 22.

元 室順 (1330-1332)刻 《事林廣記》 琬雙陸圖의 손님(도 6)은 등에 사각형 흉배가 있는 포를 입고 있다. 문양은 가지와 잎으로 보이며 테두리가 2줄 둘러져 있다. 테두리는 집사(1310완성)에 많은 흉배 중에 삼각형 흉배 한개만 (도 16-2)한줄의 테두리가 있었다.

(3) 타원형 흉배

(도 15-1)은 중심가지에 잎과 가지가 좌우로 배치되어 위 아래가 뾰족한 타원형이다. (도 15-2)는 (도 15-1)과 유사하나 잎과 가지의 간격이 넓은 타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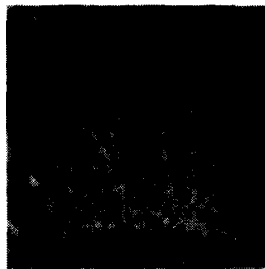
<도 15-1>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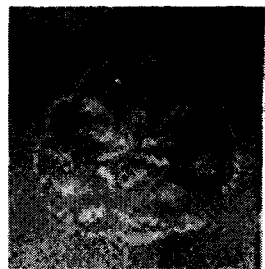
<도 15-2> 징기스칸의 손자들,
몽골제국, p. 29.

(4) 삼각형 흉배

중심에 가지를 중심으로 가지와 잎, 꽃송이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배치하여 삼각형에 가깝다(도 16-1). 몽케칸과 가족중 맨 아래 좌측에 앉은 사람의 흉색 장포에 테두리있는 밀이 둥근 삼각형 흉배(도 16-2)가 있다. 흉배문양은 꽃송이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하여 테두리를 둘러는데 테두리가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도 16-1> 홀레구칸의 봄연회,
월드, p. 22.



<도 16-2> 몽케칸과 가족,
몽골제국, p. 15.

2) 흉배의 재료

흉배가 있는 옷은 옷감에 織金(納石失)한 옷이거나 수놓은 옷이라고 본다. 織金의 방식기법은 元代에 제일 발달했으며 몽고어로 納石失이라고 한다. 남석실은 緯紋을 위해 片金線 혹은 圓金線을 사용하였으며 주제도안을 金線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했다. 金線을 가하는 기법은 戰國시대 시작되었다. 이렇게 북방소수민족이 예술을 사랑하고 장식을 좋아한것은 광막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¹⁶⁾

《원간 노걸대》에 의하면 직금흉배는 고려에서 졌다. 직금 흉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놓은 흉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테두리가 있는 삼화의 흉배(도 16-2)와 《事林廣記》의 흉배(도 6)는 직금 흉배를 잘라서 붙인 것이거나 수놓은 흉배가 아닐까 가설을 세워 본다.

3) 계급에 따른 흉배문양

계급과 흉배문양은 2가지 방법으로 고찰한다. 삼화의 등장인물이 확실한 징기스칸의 6인의 칸의 흉배를 고찰하고, 흉배가 많이 등장하는 삼화인 징기스칸과 가족(도 9) 및 몽케칸과 가족(도 10)을 비교하여 고찰한다.

징기스칸에 관한 삼화는 5개인데 답호에 사각흉배와 원형흉배를 한 경우, 외의에 운건을 한 경우 2회, 아무 장식없는 장포와 답호를 입은 경우이다.

몽케칸은 삼화 3개에 등장하는데 용흉배 있는 답호를 입은 경우, 운건과 스란이 있는 답호를 입은 경우 2회가 있다. 툴루이 칸은 운건이 있는 답호를 입고 1번 등장한다. 오고타이칸은 3번 삼화에 등장하는데 외의에 운건을 착용한 경우와 답호에 운건을 착용한 경우 2회이다. 홀레구칸(징기스칸의 동생, 일칸국의 창시자)은 운건과 스란을 시문한 답호를 입고 있다. 가잔칸은 4회 등장하는데 답호에 아무 문양이 없는 경우, 운건만 한 경우, 스란이 있는 답호에 운건을 한 경우, 대란이 있는 답호에 운건을 한 경우가 있다.

징기스칸과 가족(도 9) 중에 36인(남 31인, 여5인)이 등장하는데 흉배를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 23인중 징기스칸 외 남자 7명이 흉배를 했다. 용흉배 3인, 잎과 가지로 사각형을 이룬 흉배 5인이

다. 용상에 앉은 징기스칸은 잎과 가지로 사각형을 이룬 크기가 큰 흉배를 했고 서있는 가족 2인과 (황색 홍색 답호) 꿇어 앉은 홍색 답호 입은 사람은 징기스칸 흉배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은 흉배를 하였다.

용문 흉배는 3인이 답호에 했는데 꿇어 앉은 사람과 청색 답호를 입고 식탁 옆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과 술병을 든 사람이다.

몽케칸과 가족(도 10)에 몽케칸과 처첩 3인, 가족(아들, 왕자) 10인이 등장하는데 몽케칸은 홍색 장포 위에 답호를 입었는데 아무 장식이 없다. 가족 5인이 가슴에 흉배를 하였는데 흉배와 같은 무늬가 양어깨에도 있다. 청색 장포위에 원형 흉배와 양어깨에 문양이 있는 사람, 장포에 타원형 흉배와 양어깨에 같은 문양이 있는 사람, 흑색 장포에 테두리 있는 삼각형 흉배와 스란이 있는 사람, 보라색 장포에 용문 흉배와 양어깨에 문양이 있는 사람, 답호에 원형흉배와 양어깨에 문양이 있는 사람 총 5인의 흉배문양은 다르다. 이상을 고찰한 결과, 계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집사》의 삼화에 나타난 흉배를 고찰한 결과, 흉배는 남자만 하였고, 계급에 따른 형태와 문양의 차이는 없었다. 흉배의 형태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이며 테두리를 두루지 않았고 1개만 테두리가 있었다. 흉배문양은 동물문인 용문, 사슴문과 식물문인 大小葉紋 가지와 잎이 섞인 문양, 꽃송이와 가지를 섞인문양이다.

흉배가 織金된 옷의 종류는 답호, 장포, 군복이며 《사림광기》와 《노걸대 박통사》에는 철릭과 비갑이 있다.

흉배란 용어는 원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흉배의 역사는 漢부터 시작하여 東晉, 唐, 遼, 元까지인데 明의 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요와 원의 흉배이다.

사각형 흉배는 명대에 관리 常服 보제도로 정립되고 하층관리는 흉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황제의 보는 원형을 가슴, 등, 어깨에 시문했다.

원의 통수철릭에 흉배가 함께 시문된 철릭은 명에 전해졌다. 흉배가 금색인 것으로 보아 織金(納石失)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세계역사시리즈12 (1970). 몽골제국. 세계문화사(동경) 歷史讀本 World (1991). 특집-징기스칸과 몽골제국 新人物往來社(동경). 3월호.
원색도설대세계사 2 (1982). 아시아국가의 전개. 태극출판사.
E. Blochet (1975). *Musulmam painting*. 12C-17C, Hacker Art Books(New York)
세계문화사 III (1964). 유럽중세의 아시아의 발전. 학원사.
週刊朝日百科世界の歴史 (1989). 동경, 51권, 53권 朝日신문사.
- 2) 서정원 (2003). 老乞大'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의 북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2
《노걸대》명칭은 원래 몽고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한어 교과서로 출발한 것인데 조선초기에도 외국어 학습서의 명칭을 표시하는 《老乞大》라는 서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고려말기(1346년 추정)에 한어본을 《원간 노걸대》라고 하고 성종 14년(1483년) 《원간 노걸대》를 수정한 것을 《산개 노걸대》라 한다. 1761년 영조 37년에 산개본을 수정한 《노걸대 신석》이 있고 이것을 정조 19년에 개수. 수정한 《중간노걸대》가 있다. 한글로 언해한 번역 노걸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최세진(1509년이후)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
- 3) 원색도설 대세계사 2. p. 340.
스기야마 마이사이키 지음, 임대희의 2인 옮김 (1999).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p. 12.
역사독본 World. 21쪽.
라시드앗딘 저, 김호동 역주 (2002). 라시드앗딘의 집사 1. 부족지. 사계절, pp. 26-28.
이희수 (1991).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pp. 120-121.
North, M. Titley (1983). *Persian miniature painting*,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p. 17.
데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 (1995). 몽골석인상의 연구. 도서출판 헤인, p. 53.
- 4) 杉本正年 (1976). 東洋服裝史論考(古代編). 文化出版國 p. 161.
- 5) 戴爭撰 (1988). 中國古代服飾簡史. 輕工業出版社. p. 110.
- 6) 위의 책 p. 110.
- 7) 黃輝 (1977). 中國古代人物服式與畫法.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p. 100-101.
- 8) 介盾撰 (1990). 昭陵唐人服飾. 三秦出版社, p. 48, p. 68.
- 9) 김영재 (2000). 중국과 우리나라흉배에 관한 고찰. 한복문화학회, 제3권 3호, p. 46.
- 10) 河北省 文物研究所編 (2001). 宣化遼墓壁畫. 文物出版社, 도 52-도71.
- 11) 王青焜 (2002). 遼代 服飾. 遼寧畫報出版社, p. 87.
- 12) 위의 책. p. 72.
- 13) 서정원 (2003). 앞의 책, p. 62, p. 84.
- 14) 박통사, p. 54.
- 15) 大明會典 卷 六十一, 禮部 洪武3년에 樂藝의 冠服을 정했는데 供奉 俳優는 ?吹冠에 紅羅胸背小袖袍.....이고 歌工은 모두 弁冠에 紅羅織金胸背大袖袍.....로 하였다.
- 16) 林淑心 (1984). 衣錦行(國立歷史博物館) 중화민국, p. 102.
王青焜 (2002). 遼代 服飾, 遼寧畫報出版社.
王維忠 劉翠華, 周加戎 繪給 (1996). 藝用服飾資料. 遼寧美術出版社.